

포장재 규격화에 전력투구 할 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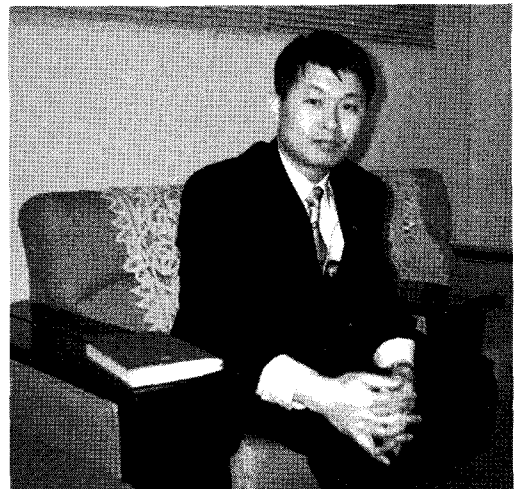
진흙속에 묻힌 진주를 캐는 물류인

이동광 / (주)코오롱 물류팀 과장

“우 리나라의 산업을 보면 생산공정
이나 판매, 그리고 영업에 있어
경영관리는 선진국과 대등할 정도로 기법이
발전됐지만 물류산업은 아직도 연구·개발되
어야 할 부분이 무궁무진 합니다.”

지난 4년간 (주)코오롱 물류팀을 맡아 온
이동광 과장은 물류산업에 대한 연구와 노력
을 하면 할수록 물류의 세계에 대해 밝혀야
할 부분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. 생산라인이
계속적으로 돌아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설비
투자가 있는 한 물류의 범주는 더욱 확산된다
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.

(주)코오롱의 물류팀 현황에 대해 이 과장은
“저희 물류팀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습
니다. 물류에 대한 원칙적 이론이나 메뉴얼이
없는 상태라……. 물류팀보다는 물류개선팀
혹은 물류연구팀이라 칭하는 것이 더 맞는 말
인 것 같아요 사실 물류란게 산업의 전공정
에 관계되는 거라 시작이란게 없어요 아시다
시피 물류라 하면 크게 생산물류, 조달물류,
판매물류로 나누어지지만 그 각각의 공정안에는
또다른 물류가 존재하거든요 저희 물류팀



▲ 이동광 (주)코오롱 물류팀 과장

에서는 물류의 근간을 이루는 ‘포장’에 초점을
맞췄습니다”라고 말하며 “포장은 정태적
물류라 볼 수 있는데, 현재 우리나라의 포장
재질은 200여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그 많은 포장재질 중에서 코오롱이 사용하고
있는 포장재의 규격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
게 합리적이냐 하는 물음으로 출발했습니다”
라고 덧붙였다.

이 과장이 말한 그 출발점은 원사를 생산하

물류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는
중요하지 않다고 밝히는 그는 오히려
물류비를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
시각이라고 강조한다.

는 김천공장에서부터 시작됐다. 설비도입 초기부터 포장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시행해 최소의 비용으로 포장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다. 지금 현재 전체 원사물량의 40%가 국가표준 규격으로 생산된다고 한다.


골판지포장의 경우 원지배합에 있어 파열강도를 기준으로 해오던 것을 압축강도 기준으로, 즉 골심지를 강화했으며, 팔레트도 폐지를 활용해 폐조립팔레트를 사용함으로써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했다. 또한 물류의 통합화와 집중화를 위해 (주)코오롱의 수출입통관 관계 부서와 물류팀을 통합함으로써 기존 운송·운임비의 15% 정도가 낮춰졌다.

이런 실적에 대해 그는 “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타기업도 물류에 대해 조금만 신경쓰면 비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습니다. 물류에 대해 아는 만큼 원가가 절감되거든요. 저희 물류팀은 앞으로도 포장재료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고, 운송면에서 수출보다 내수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내륙운송의 합리화에 전력투구 할 것입니다”라고 강조했다.

포장물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 과장은 (주)코오롱의 판매물류영업을 해오다 92년에 물류팀이 업무부에서 팀조직으로 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물류팀을 담당해 오고 있다.

요즈음에도 그는 개선담당자로서, 포장물류 제공자로서 한달에 3회씩 있는 회의에 참석해 각 사업본부의 기획팀과 많은 의견제진을 하고 있다. 이같은 그의 헌신적 노력과 회사의 협조로 (주)코오롱의 작년 물류비용이 9%선이었다. 물론 이 수치는 자체적으로 산출한 것이지만 정부나 기관단체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물류비용 15%에 비하면 물류의 합리화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.

이에 대해 그는 “물론 물류비 산출을 어떻게 뽑아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보다 더 중요한 시각은 물류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가라고 봅니다. 의사가 환자에게 청진기만 갖다 대고 진찰료가 얼마나 나왔으니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, 신체의 각 부위를 정밀히 진찰해 어디가 잘못되고 그곳은 이렇게 처방해라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?”라고 비유한다.

언젠가는 물류가 고객만족전략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과장은 조그마한 바램이 있다. 그것은 물류현장에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지식과 각성, 그리고 선진물류정보와의 접목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다. 

변준섭 기자